

2019년 9월 6일

일진홀딩스 (015860.KS / Not Rated/CP:3,410원)

Comment

백준기 (02-768-7066)

저도 좋아합니다

동사는 일진다이아, 일진전기 등을 보유한 순수지주회사. 올해 2분기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시작되었다고 판단. 특히 의료기기 자회사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지분율 94.1%)의 흑자 전환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수익률도 3%로 진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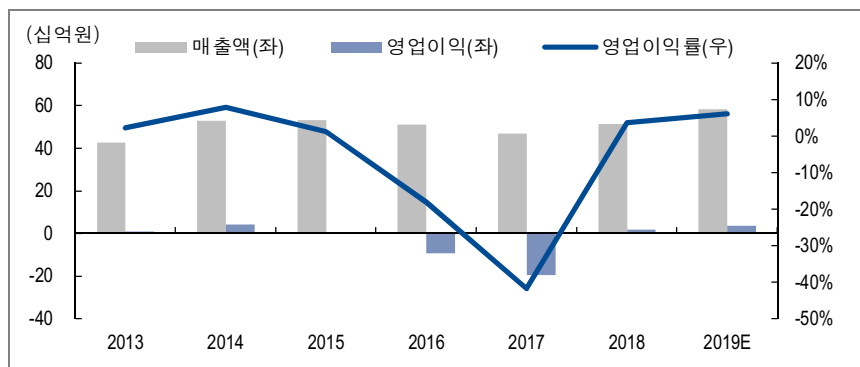
-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 일진홀딩스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주요 자회사 일진전기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의 동반 실적 부진 때문. 이에 2016~ 2018년 3년간 지배주주순이익 적자를 기록함. 그러나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사에 대한 주요 투자포인트는 1) 일진전기가 수익성 높은 수주 통해 이익률 개선 기대되고, 2) 지난 3년간 적자 요인이었던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 올해 비용 효율화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3) 50.1% 자회사 일진다이아는 국내 유일의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사인 일진복합소재 성장에 따른 수혜 예상된다는 것
- 특히 94.1% 지분 보유한 자회사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해외 파트너사 통한 판로 확대로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전망. 구조조정 통한 비용 구조 개선으로 올해 5년 만에 순이익 흑자 개선 예상. 알피니언의 올해 매출액은 582억원(+13.4% y-y)과 순이익 19억원 전망

- 현재 동사 시가총액은 자회사 일진다이아 지분가치보다도 낮은 수준

- 2019년 매출액은 8,415억원(-9.5% y-y)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나 이는 일진전기의 수익성 위주 수주 전략에 따른 것으로 2020년은 일진다이아와 알피니언의 성장으로 재차 성장 궤도 진입할 전망. 현재 시가총액 1,683억원은 자회사 일진다이아(지분율 50.1%)의 지분가치(2,510억원) 보다도 크게 낮은 상황으로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과 일진전기(지분율 57%)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로 판단됨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5년만에 순이익 흑자전환 예상



자료: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30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76.7%	23.3%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일진홀딩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